

6. 누가 선교사 멤버케어를 필요로 하는가? Who Needs Missionary Member Care?

짧고 간단한 요약 Short & Simple Summary

“누가 선교사멤버케어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간결한 답은 모든 선교사들은 어떤 종류의 멤버케어든지 멤버케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4 세기 전에 존 던(John Doone)은 이렇게 썼다. “어느 누구도 하나의 섬 전체일 수 없다. 각 개개인은 대륙의 일부이다. 그것도 대륙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선교사들은 개인이지만 결혼하고 자녀가 생기면 추가 구성단위가 형성된다. 이런 구성 단위들도 또한 케어를 필요로 한다. 더욱이 선교사들은 대체로 함께 밀접하게 일하는 팀, 분야(때로는 지역 또는 카운티 주), 선교기관의 일부이다. 이러한 추가 구성단위들도 역시 케어를 필요로 할지 모른다. 다음의 리스트는 이번장에서 다룰 주제들이다.

개인 Individuals

결혼한 부부 Married Couples

가족 Families

팀 Teams

분야(지역, 국가 등) Fields (regions, countries, etc.)

기관 Agencies

더 구체적인 내용과 다른 자료로 링크를 원한다면, 계속 읽기를 권한다

“스스로 헤쳐 나가라”는 것을 배우는 개인주의적인 현대 서양문화에서는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믿을지 모른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청하는 것은 미숙 혹은 연약함의 사인이고, 신앙심이나 영성이 부족한 증상이거나 또는 아픈 증상이라고 믿을 수 있다. 그러나 선교 초기부터 ‘론 레인저’(미국 서부의 치안을 위해 홀로 활약하는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의 주인공)는 거의 없었고 심지어 론 레인저조차도 그의 동족인 톤토족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고립된 지역에 살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헤쳐 나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간다. 데이빗 리빙스톤과 같은 일부 선교사들은 오랜 기간 홀로 살았다. 그러나 거의 모든 선교사들은 멤버케어, 동료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케어를 필요로 한다. 일부 선교사들에게는 그 정도의 케어가 충분할지 모르지만, 다른 선교사들은 본국의 선교본부나 외부 기관에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케어를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 그러한 멤버케어는 한번에 한 선교사에게 또는 다양한 그룹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 여기에 우리가 그동안 제공한 몇가지 멤버케어 자료의 사례가 있다. 물론 온라인에서 이용가능한 도움되는 자료 링크와 함께 제공했고 출판된 자료 중 가장 좋은 자료를 추천했다.

개인 Individuals

선교사 멤버케어의 가장 기초적인 전달방법은 한 사람이 다른 개인을 위해 케어해 주는 것이다. 일대일의 대면 관계는 가장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것이다. 아래 두 권의 책은 온라인을 통해서 유익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 선교사가 알아야 할 것; 삶과 사역을 위한 핸드북 (*What Missionaries Ought to Know: A Handbook for Life and Service*, http://www.missionarycare.com/ebook.htm#ought_to_know)
- 선교사들을 위한 심리 (*Psychology for Missionaries*, <http://www.missionarycare.com/ebook.htm#psych>)

영어로 출판된 이 탁월한 책은 모나크 북스 출판사(Oxford, UK 와 Grand Rapids, MI, USA)에서 출판한 마조리 포일(Marjory Foyle)이 쓴 *명예로운 상처: 기독교 사역자들의 스트레스 (Honourably Wounded: Stress among Christian Workers, 2001)*이다.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면 웹사이트 <http://www.missionarycare.com/dbFullArticle.asp?articleid=641> 를 참조하라.

다음은 한 구성단위로서 종종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그룹들’이다.

결혼한 부부 Married Couples

바울은 잘 알려진 ‘미지의 신에게’라는 설교를 마치고 바로 아테나를 떠나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바울은 (폰투스 태생) 아굴라(Aquila)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Priscilla)를 만났다.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Claudius)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사도행전 18:1~2), 이 결혼한 부부는 이탈리아에서 얼마 전에 피난나왔었다. 고린도에서 1년 반 사역을 마친 후에(사도행전 18:11), 그들 셋은 시리아로 떠났다. 그러나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에베소에 남겨 두었고(사도행전 18:19), 그들은 아볼로를 제자로 양육했다(사도행전 18:26).

타문화권으로 자주 옮기거나 타문화권에서 생활하는 것은 결혼 관계에 부담을 주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는 많은 부부들을 힘들게 하는 긴장감이다. 물론 남편이나 아내 각각을 케어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들을 동시에 케어하게 되면 부부 사이에 관련된 문제 자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이다.

‘선교사들의 부부 이슈(Missionary Marriage Issues)’라는 책의 온라인 판(<http://www.missionarycare.com/ebook.htm#marriage>)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책의 각 장은 각각 피디에프(pdf) 형태의 소책자(브로셔)로 인쇄해서 커플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http://www.missionarycare.com/brochures.htm>). 마지막으로 결혼 이슈에 대한 인쇄물로 발간된 정보는 <http://www.missionarycare.com/dbTopics.asp>에서 얻을 수 있다. 특별히 ‘결혼 이슈’와 ‘여자의 역할’로 링크하는 것이 적절하다.

가족 Families

선교사로 사역하는 젊은 부부에게 자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는 가족으로 생활하는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라고 하는 또 다른 관계를 고려해야함을 의미한다. 부모와 어린 자녀 또는 사춘기

자녀들의 관계는 서로 다른 역동성을 갖고 있는 문화에서 생활할 때, 그 선교지 현지 문화에서 사는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 다음 세 권의 책들은 부모들을 위한 것이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것으로 선교사 자녀들에게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부모로 하여금 사춘기 자녀들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세 번째는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이 고국 문화로 다시 들어 가는 것을 도와주는 책이다.

- 회복 탄력성이 있는 선교사 자녀들을 양육하기: 도우미, 부모, 교사를 위한 자원들(*Raising Resilient MKs: Resources for Caregivers, Parents, and Teachers at* http://www.missionarycare.com/ebook.htm#resilient_mks)
- 사춘기 자녀 이해하기(*Understanding Adolescence at* <http://www.missionarycare.com/ebook.htm#adolescence>)
- 저는 고국에 돌아가기 싫어요: 초등학교의 귀국을 위한 부모 가이드(*I Don't Want to Go Home: Parent's Guide for Reentry for Elementary Children at* http://www.missionarycare.com/ebook.htm#going_home)

레슬리 앤드류스(Leslie Andrews)는 '선교 가족: 사역자의 이해와 돌봄(*The Family in Mission: Understanding and Caring for Those Who Serve*, 2004)'이란 책을 편집했고 이 책은 팔머 레이크에 소재한 국제 선교훈련원(MTI)에 의해서 출판되었다. 이 책은 MK-CART/CORE 가족 연구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보딩스쿨에 대한 연구와 성인 선교사 자녀(adult MK study)에 대한 연구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정보를 좀 더 알고 싶다면 다음 자료(<http://www.missionarycare.com/dbFullArticle.asp?articleid=816>)를 보라.

마지막으로 가족 문제에 관한 인쇄된 정보는 <http://www.missionarycare.com/dbTopics.asp.dptj> 에서 얻을 수 있다. '가족(family)'과 '역기능 가족들(dysfunctional families)'로 링크하는 것이 특별히 적절하다.

팀 Teams

예수님과 초대 교회는 사역자를 개인으로 혼자 보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보내셨을 때 두 명씩 짝을 지어 보내셨다(마가복음 6:7). 예수님이 70 명의 제자를 자신보다 먼저 파송했을 때, 두 명씩 짝지어 보내셨다(누가복음 10:1).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팀으로 파송했고(사도행전 13: 1~3), 요한은 키프러스에서 그들과 합류했다(사도행전 13:5).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이 엇갈렸을 때 그들은 서로 헤어졌지만 각자 동반할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 어느 누구도 혼자 가지 않았다.

팀(team)은 같은 도시에서, 같은 기관에서, 같은 프로젝트나 기타 사역에 관하여 긴밀하게 함께 일하는 선교사 그룹이다. 대개 팀에는 리더로 정해진 한 개인이 있다. 결혼한 커플들은 그들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같이 사역을 하지만, 이것이 다른 팀들에도 항상 같은 케이스는 아니다. 일부 개인들은 그들이 함께 일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행정 담당자가 그들을 함께 일하도록 임명했을지도 모른다. 서로 사역을 같이 하기로 선택해서 어느 기간을 같이 사역했더라도 두 번째 사역기간 초기에 바울과 바나바처럼 불협화음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러한 팀 멤버들은 의견 차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멤버케어를 필요로 할 것이다. 아마 한 명의

멤버케어자가 있었더라면 마가 요한이 조기에 떠나지 않도록 또는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팀 이슈에 대해 발간된 정보는 <http://www.missionarycare.com/dbTopics.asp> 에서 볼 수 있다. ‘리더들(leaders)’ 그리고 ‘팀 개발(team development)’이라는 링크가 적절하다.

다문화 팀은 최소한 하나 이상의 문화가 혼재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이다. 만약에 한 팀에 소속된 모든 선교사들이 동일한 파송 국가 출신이라면 두 개의 문화가 개입된 것이다: 선교사가 파송된 나라 문화와 사역지 현지 문화이다. 또다른 국가로부터 온 선교사가 팀에 합류할 때 만일 그들이 다른 선교사들과 같은 언어 혹은 현지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그 팀에 다른 문화 숫자를 추가시킨다. 이것은 일을 복잡하게 만들며 멤버케어를 하는 누군가를 통하여 그 차이점이 정리될 것을 요구할지 모른다.

‘신뢰할 수 있는 다문화 팀 만들기(*Building Credible Multicultural Teams*)’라는 리앤 롬키(LeAnne Roembke)의 책은 이러한 이슈에 대하여 탁월한 책이다. 이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웹사이트 <http://www.missionarycare.com/dbFullArticle.asp?articleid=660> 에서 볼 수 있다.

분야(지역, 국가 등) Fields (regions, countries, etc.)

함께 긴밀하게 사역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보다 큰 규모의 선교사 그룹은 서로 가까이 살지 않으며 서로간에 자주 만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때로는 지역 디렉터(field director)라고 불리는 리더 아래에 있고 한 지역을 구성하게 된다. 이것은 더 규모가 큰 행정 구역이며 전체 국가, 한 국가의 주요 부문, 또는 인접한 여러 나라로 구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동일한 지역에서 사역하는 팀이라도 도시간에 또는 농촌과 도시 선교사간에 서로 의견 대립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멤버케어 담당자를 필요로 할 것이다.

초기 교회는 명확하게 ‘지역’이 있지 않았으나 그들은 다른 국가와 도시에 선교사들을 갖고 있었다. 사도행전 18 장 첫 다섯 절에 의하면 우리는 고린도에서 다음에 열거된 선교사들을 볼 수 있다.

- 아테네(그리스의 다른 도시)에서 온 바울
- 이탈리아 출신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 마케도니아 출신의 실라와 디모데

그들은 각기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이 팀은 고린도에서 1 년 반을 함께 사역했다.

기관 Agencies

때때로 어떤 이슈는 선교기관 전체가 관여되어 있다. 이는 조직의 핵심에 있는 체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해결해야 할 신학적인 논제일 수도 있으며, 혹은 기관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관련된 어떤 문제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경우에 그 해결책은 소위 “잔디 전쟁(turf wars)”이 되어버리고 선교사 인력만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기간(term)이 끝나고 돌아온 후에 이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그들은 그들을 파송한 교회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 보고했고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행 14: 26~28). 그리고 나서 일부는 안디옥으로 돌아와 할레가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인가 질문을 제기했다. 파송 교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 바나바와 다른 신자들을 예루살렘 본 교회로 보냈다. 그들은 바리새파였던 일부 신자들과 함께 사도들과 장로들을 만났다. 사도행전 15 장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그들이 그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다음을 살펴보자.

- 양쪽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입장을 설명했고 바리새파에게도 자신들의 입장을 변론할 기회가 주어졌다 (5~11 절).
- 적절한 토의를 위한 시간을 준다. 이는 매우 중요한 주제 (구원)였기 때문에 ‘많은 토론’이 있었다.
- 조용하라. 그들이 토론을 들을 때 ‘모든 회중이 조용했다’고 한 것을 주목하라. 때때로 그런 상황에서 대중들 사이에 속삭거리는 경향이 자주 있다 (12 절).
- 경청하라. “그들은 경청했다.” 조용히 있는 것과 실제로 경청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당신 자신을 상대방의 입장에 놓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정말로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때때로 우리는 ‘듣기를 그만 두고,’ 우리 마음이 방황하거나, 우리가 대답할 것을 생각하고 있다든지, 혹은 토론이 길어지면 즐기기도 한다 (12 절).
- 상대방이 말을 마치도록 하라. 야고보는 ‘다른 사람들이 변론을 마칠 때까지 방해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3 절).
- 주제에 집중하라. 여기에서 주제는 과연 구원을 위하여 할레가 필요한지 아닌지였다. 율법서에서 제시될 수 있었던 모든 다른 주제들을 상상해 보라! 그리고 인격(personalities)이 아닌 이슈를 논하도록 하라.
-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라. 토론 중에는 말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역공격이 있었다는 보고가 없다.
- 성경을 적용하라. 해석상의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최소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분명히 보아야 한다. 야고보는 아모스 9 장 (15~18 절)을 인용했다.
- 해결책을 제시하라. 야고보는 ‘이것은 나의 판단이다, 그러므로...’(19~21 절)라고 말했다.
- 핵심을 다루라. 그들은 모두 몇 개 항목에 대해 동의했고 편지를 썼다(20~29 절).
- 결정을 수용하라. 대표단이 안디옥에 있는 교회로 돌아와 편지를 전달하였을 때 ‘성도들은 그것을 읽고 격려하는 메시지에 대하여 기뻐했다’(31~32 절).
- 우정을 재확인하라. 친교를 위해 그곳에서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축복 속에 전송을 받았다(33-35 절).

예루살렘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러한 절차가 문제를 푸는데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자 입장이 너무 강경한 경우 이런 절차가 잘 적용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기관에 대해 출판된 인쇄물 형태의 정보는 <http://www.missionarycare.com/dbTopics.asp>에서 얻을 수 있다. ‘기관의 책임,’ ‘조직’, 그리고 ‘시스템’으로 링크하는 것이 적절하다.

문제가 발생할 때 개인들은 케어를 필요로 할 수 있지만 그 문제에 덧붙여 결혼이슈, 가족이슈, 팀이슈, 지역이슈, 기관이슈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모든 이슈들이 선교사 멤버케어를 제공할 때 고려되어야만 할 필요가 있다.

독자들에게 대한 저자의 부탁. 만일 이 장의 질문에 대하여 더 나은 대답을 할 수 있는 다른 제안이 있다면 ron@missionarycare.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이메일에 3 가지를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무엇이 더 포함 될 필요가 있는가? (2) 가능하다면 관련된 웹 주소를 링크로 첨부해 주십시오, (3) “왜 우리가 선교사를 돌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더 나은 답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지... 저는 이러한 독자의 의견들을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이 책을 업데이트하고 증보할 계획입니다.

† 이 브로셔는 저자 로날드 코테스키 박사의 원문([Ronald Koteskey: www.missionarycare.com](http://www.missionarycare.com))을 저자의 승인 하에 올네이션스선교센터(www.anmcusa.org)에서 번역한 것으로 한국어 판권은 올네이션스선교센터에 있습니다